

고려·조선 和蘇詩의 창작 양상과 사회문화적 의의*

류 소 진**

— <目次> —

| | |
|-------------------------------|----------------------------|
| I. 서론 | IV. 문우들과의 교유를 위한 화소시 창작 |
| II. 소식과의 정신적 교감을 위한 화소시 창작 | V. 결론 |
| III. 자신의 작시 훈련을 위한 화소시 창작 | |

I. 서론

北宋 문인 蘇軾(1036~1101)은 고려·조선 문인들이 흠모한 대표적인 중국 문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고려·조선 문인들은 문학·예술·풍류 등 여러 분야에서 소식을 적극적으로 추앙하고 학습했는데, 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식의 시를 수용했다.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려·조선 문인들의 소식 시 수용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바, 이를 통해 소식의 시에 화운하는 이른바 ‘和蘇詩’ 창작이 고려·조선 문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소식 시 수용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추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고전종합DB·한국문집총간 및 각 문인의 개별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를 모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6487).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선별해 내고 아울러 그 시에 해당하는 소식의 원시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는 대부분 소식 원시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의 원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예컨대, 蔡壽의 화소시 <동파의 눈을 읊은 시에 차운하여 차소에게 부치다(次東坡雪詩, 寄次韶)>는 제목에서 ‘次東坡雪詩’라고만 밝혀 놓았는데 소식의 시 가운데 눈을 읊은 시가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시에 화운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심지어 소식의 원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10% 정도나 되었으니, 周世鵬의 화소시 <송미수와 함께 동파의 시운에 차운하다(與宋眉叟共次東坡韻)>는 제목에서 단지 ‘次東坡韻’이라고만 밝혀 놓았기 때문에 2,800수 정도 되는 소식의 시 중에서 어느 시에 화운한 것인지 더욱이나 막연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식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운자를 대조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전하는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는 대략 230인의 860수에 달한다.¹⁾ 고려·조선 문인들이 陶淵明 시에 화운하여 지은 和陶詩의 경우 134인의 942수라는 사실²⁾과 비교해 보면 작품의 수는 약간 적지만 문인의 수는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고려·조선 문인들이 소식의 시를 애호했는지를 말해 주는 방증이 된다.

이러한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 창작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고려 중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약 7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

1) 먼저 ‘次東坡’·‘次蘇仙’·‘用蘇東坡’·‘用子瞻’·‘和蘇子瞻’·‘和蘇長公’ 등 소식과 관련된 어휘 24개로 검색하여 1차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자신이 앞서 지었던 화소시에 다시 차운하는 경우 ‘復和’·‘再用前韻’·‘三次’ 등의 방식으로 시제를 짓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유형의 화소시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인들의 개별 문집을 확인하는 2차 선별 작업도 진행하는 등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화소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실제 화소시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2) 김보경, <韓國 ‘和陶詩’ 研究 序說>, 《중국문학》 제66집, 2011, 220쪽 참조.

되었다는 사실과, 특정 유파나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수많은 문인들이 광범위하게 이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간주되어³⁾ 적지 않은 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화도시에 비해,⁴⁾ 화소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고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 3) 袁行霈의 〈論和陶詩及文化意蘊〉에 “和陶是一種很特殊的、值得注意的現象，其意義已經超出文學本身，而在更加廣泛的文化層面上吸引我們進行研究。…… 更爲重要的是，這種現象說明陶淵明已經成爲中國文化中的一個符號。和陶，在不同程度上代表了對某種文化的歸屬，標誌着對某種身份的認同，表明了對某種人生態度的選擇”(《中國社會科學》 第6期, 2003, 149쪽)라고 했고, 정숙인의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陶淵明的 〈飲酒〉, 蘇軾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에 “조선의 문인들에게 화도시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을 정도로 창작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우리문학연구》 제35호, 2012, 91쪽)라고 했다.
- 4) 국내의 화도시 관련 연구로는 김보경의 〈韓國 ‘和陶詩’ 研究 序說〉(《중국문학》 제66호, 2011), 임준철의 〈조선 전기 和陶詩의 轉變〉(《한국한문학연구》 제60호, 2015) 등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도시를 거시적으로 고찰한 논문, 강지희의 〈退溪의 ‘和陶集飲酒二十首’에 나타난 陶淵明 수용 양상〉(《동방한문학》 제44호, 2010), 유영봉의 〈良齋의 ‘和陶詩’에 관한 연구〉(《간재학논총》 제16호, 2013), 김남이의 〈佔畢齋 金宗直의 ‘和陶淵明述酒가 읊은 역사와 현실의 문제—1475년(성종6) 겨울, 왜 陶淵明의 ‘述酒’인가?〉(《코기토》 제81호, 2017), 이관성의 〈陶厓 洪錫謨의 和陶詩 연구〉(《동양고전연구》 제74호, 2019) 등 고려·조선 개별 문인의 화도시를 연구한 논문, 정숙인의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陶淵明的 〈飲酒〉, 蘇軾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우리문학연구》 제35호, 2012), 이영숙의 〈晦峯 河謙鎭의 ‘和陶詩’와 東坡 蘇軾의 ‘和陶詩’ 比較研究〉(《南冥學研究》 제39호, 2013) 등 우리나라 문인들의 화도시와 소식의 화도시를 비교·분석한 논문에서 이르기까지 주제도 상당히 다양하고 수량도 적지 않다.
- 5) 국내의 화소시 관련 연구로는 김경동의 〈소식 시에 대한 이규보의 追和詩〉(《중국어문학지》 제19호, 2005), 김상홍의 〈茶山의 〈和蘇長公東坡八首〉考〉(《동아시아고대학》 제19호, 2009), 황민선의 〈〈和蘇長公東坡〉에 드러난 다산의 幽人 공간 고찰〉(《한국시가문화연구》 제42호, 2018) 등이 있는 정도이다. 이밖에 손팔주의 〈申緯와 蘇軾〉(《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제3권, 1997), 이창룡의 〈退溪의 東坡受容樣相〉(《국어교육》 제44권, 1983) 등에서 우리나라 문인들의 소식 수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에 화소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룬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화소시에 중점을 둔 연구가 아닌지라 서술이 소략한 편이다. 필자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이 분야의

이에 필자는 각종 문헌을 통해 직접 선별해 낸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와 그 시의 원시에 해당하는 소식의 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화소시를 창작한 심리 기제와 그것에서 비롯된 화소시 창작의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해 봄으로써 소식이 고려·조선의 문인 사회에 미친 영향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소식과의 정신적 교감을 위한 화소시 창작

옛사람의 시에 화답하는 追和詩는 기본적으로 原詩에 대한 애호와 원시 작자를 향한 흠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 창작 역시 소식 시에 대한 애호와 소식의 위인에 대한 흠모가 저변에 깔려 있다. 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화소시가 형식상으로는 물론 내용상으로도 소식 원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간혹 내용상으로는 소식 원시와 별다른 관계없이 소식 시의 운자만 활용한 시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화소시는 창작 배경 및 주제가 소식의 원시와 일치하는데, 그중에는 소식을 향한 흠모의 정을 드러내거나 소식의 인품을 칭송하는 등 소식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원시의 내용을 典故로 활용하는 등 소식 원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유배 생활과 지방관 생활 등의 이유로 타향살이를 할 때나 가족·친구와의 이별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등 각종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지어진 소식의 시를 떠올리고 그것에 화운한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화소시를 몇 수 예시하면 <표 1>과 같다.

연구에 주력해 왔다.

〈표 1〉 소식 원시와 화소시의 창작 배경 및 주제 일치 사례

| | 소식 원시 | 화소시 | 창작 배경 및 주제 |
|---|---|---------------------------|-----------------------------|
| 1 | 〈子以事繫御史臺獄，獄吏稍見侵，自度不能堪，死獄中，不得一別子由，故作二詩授獄卒梁成，以遺子由，二首〉 | 丁若鏞，〈獄中和東坡西臺詩韻〉 | 옥중에서의 심경을 읊음. |
| 2 | 〈十二月二十八日，蒙恩責授檢校水部員外郎黃州團練副使，復用前韻，二首〉 | 丁若鏞，〈出獄復和前韻〉 | 출옥 후의 심경을 읊음. |
| 3 | 〈今年正月十四日，與子由別於陳州，五月，子由復至齊安，以詩迎之〉 | 曹偉，〈用東坡韻，送伯彝(倫)·子眞(侗)兩庶兄〉 | 형제와의 이별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을 노래함. |
| 4 | 〈除夜野宿常州城外二首〉 | 鄭士龍，〈用東坡常州除夜韻〉 | 타향에서 홀로 설날그믐을 보내며 외로움을 노래함. |
| 5 | 〈去歲九月二十七日，在黃州，生子遯，小名幹兒，頎然穎異。至今年七月二十八日，病亡於金陵，作二詩哭之〉 | 金春澤，〈聞次兒病夭，用東坡哭子韻〉 | 요절한 아들을 애도하며 슬퍼함. |
| 6 | 〈八月七日，初入籟，過惶恐灘〉 | 申欽，〈到謫所，次蘇子瞻惶恐灘韻〉 | 유배지에서의 복잡한 감회를 읊음. |

1번과 2번 화소시는 각각 丁若鏞(1762~1836)이 옥중에 있을 때와 출옥한 뒤에 지은 것으로, 1번 화소시의 서문에서 “옛날에 소동파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를 지어 동생 자유(蘇轍)에게 부쳤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 역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소 씨의 운에 화운하나니 사정이 비슷하기에 문득 느끼는 바가 있어서이다. 뒷사람들도 아마 나의 이 심정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昔東坡在囚，詩寄子由，蒙叟入獄，亦和蘇韻，事有相類，曠然有感。後之人尚亦恤余哉)”⁶⁾라며, 소식의 이 시에 화운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혔다. 정약용은 이때 자신과 비슷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6) 丁若鏞，〈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本) 卷4.

소식을 떠올리며 소식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소식과 정신적으로나마 교감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여 이 시에 화운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1번 시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옥하게 되었는데, 이때 1번 시의 운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예전 시에 화운하는 방식으로 2번 시를 지었다. 이 두 수의 시는 제목은 다르지만 운자가 동일하기에 마치 두 사건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를 통해 상반되는 상황에서의 대비되는 감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를 주는바, 소식이 애초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동일 운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정약용 역시 출옥 후에 이러한 소식의 방식을 그대로 본떠서 2번 화소시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문자 유희 차원에서 화운한 것이 아니라, 소식이 의도했던 치밀한 구상을 그대로 본뜬으로써 소식 원시에 담긴 감정성까지 유사하게 담아내고 싶었던 세심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3번 시는 曹偉(1454~1503)와 소식 모두 형제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것이다. 두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소식, <금년 1월 14일에 진주에서 자유와 헤어졌는데 5월에 자유가 다시 제안에 왔기에 시로써 그를 맞이한다(今年正月十四日, 與子由別於陳州, 五月, 子由復至齊安, 以詩迎之)>⁷⁾

驚塵急雪滿貂裘,
淚灑東風別宛丘。
又向邯鄲枕中見,
却來雲夢澤南州。
睽離動作三年計,
牽挽當爲十日留。
早晚青山映黃髮,

놀란 먼지와 급한 눈이 담비 갓옷에 가득할 때
동풍에 눈물 뿌리며 완구와 작별한 뒤로
또다시 한단의 베개 위에서나 보았는데
급기야 네가 운몽택의 남쪽 고을로 왔네.
한 번 헤어졌다 하면 삼 년을 헤아리니
아무래도 열흘은 붙잡아야 되겠네.
조만간 청산이 누런 머리에 비칠 때

7) 蘇軾(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1051-1052쪽.

相看萬事一時休. 서로 보기만 해도 만사가 일시에 그만이었네.⁸⁾

조위, 〈소동파의 운을 사용하여 백이(운)·자진(진) 두 서형을 전송하다(用東坡韻, 送伯彝(倫)·子眞(侏)兩庶兄)〉⁹⁾

| | |
|----------|-----------------------------|
| 翦翦尖風徹冕裘, | 술술 부는 찬바람이 갓과 두루마기를 파고들고 |
| 崩騰騰雪滿林丘. | 흘날리는 설달 눈이 숲과 언덕을 뒤덮네. |
| 崎嶇款段山中路, | 산길 울퉁불퉁한 곳에 말이 느릿느릿 걸어가고 |
| 迢遞鵠原海上州. | 바닷가 고을 먼 곳에 할미새가 들판을 날아다니네. |
| 千里團欒那忍別, | 천 리 밖에서 단란히 지내다 어찌 차마 헤어지리? |
| 一樽邂逅且相留. | 술 한 잔 놓고 해후의 정을 풀려고 잠시 붙잡네. |
| 穎濱坡老當時約, | 영빈유로(소철)와 동파 노인은 당시에 약속하기를 |
| 黃髮青山早晚休. | 조만간 누런 머리로 청산에서 쉬자 했네. |

소식과 그의 동생 소철은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는데, 이들 형제는 지방관 생활과 유배 생활 등의 이유로 각기 다른 지역을 전전하느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 이 시를 지을 무렵, 소식은 헤어져 있던 소철과 잠시 만났으나 소철이 곧 자신의 임지로 돌아가야 했기에 만나자마자 다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시는 바로 소식이 이런 상황에 놓인 자신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제5구 “睽離動作三年計”는 소식 형제가 지금까지 한 번 헤어졌다 하면 대개 3년 동안 떨어져 지냈으므로 이제 헤어지면 또 3년 동안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제6구 “牽挽當爲十日留”는 자제할 수 없는 아쉬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마지막 두 구절 “早晚青山映黃髮, 相看萬事一時休”에서는 늘그막에 동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조위 역시 두 서형과의 헤어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소식의 이 시가 자

8) 본고에서 인용한 소식 시 가운데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권 11-20에 수록된 시의 번역은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3》(류종목 역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2016)을 참고하되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9) 曹偉, 《梅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卷2.

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소식의 이 시에 화운한 것은 결코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조위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소식의 마음에 더욱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당시 소식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동지를 만난 것처럼 위안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랬기에 화운을 통해 소식과의 정신적 교감과 소통을 시도했던 것이다. 특히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소식 원시의 마지막 두 구절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도 늘그막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넉넉히 표현함과 동시에 소식 원시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소식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소식의 원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위의 이 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의 원시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조위 형제의 우애도 소식 형제 못지않게 두텁다는 것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번 시는 鄭士龍(1491~1570)과 소식이 둘 다 타향에서 선달그믐을 맞아 외롭고 쓸쓸한 감회를 토로한 것으로,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식, 〈선달그믐 밤에 상주성 밖에서 노숙하다(除夜野宿常州城外二首)〉 其一¹⁰⁾

| | |
|--|---|
| 行歌野哭兩堪悲, 遠火低星漸向微。 病眼不眠非守歲, 鄉音無伴苦思歸。 重衾脚冷知霜重, 新沐頭輕感髮稀。 多謝殘燈不嫌客, 孤舟一夜許相依。 | 길에서 노래해도 들에서 울어도 슬프기는 한가지인데 먼 곳의 불빛과 나지막한 별이 점점 희미해지네. 눈이 아파 잠 못 드는 것이지 수세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 말 함께 쓰는 사람 없어 고향 생각 간절한 것이네. 겹이불에도 발이 시려 서리가 많이 내린 줄 알겠고 막 감은 머리 개운하여 머리카락이 성긴 느낌이네. 가물거리는 등불이 나그네를 싫어하지 않고 외로운 배에서 밤새도록 함께해 주어서 고맙네. |
|--|---|

정사룡, 〈소동과가 상주에서 제야에 쓴 시의 운을 사용하다(用東坡常州除夜韻)〉 其一¹¹⁾

寸腸容得兩年悲, 마음속에 두 해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10) 蘇軾(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533쪽.

11) 鄭士龍, 《湖陰雜稿》(韓國文集叢刊本) 卷2.

除却燈花伴客微。
一線肯留今夜玩。
大刀仍折獻春歸。
櫪無喧馬憐賓少。
林有棲鴉任炬稀。
小酌闌殘還打睡。
冷衾虛幌轉誰依。

등불 말고는 이 나그네와 짝해 주는 사람이 없다.
잠간의 시간이라도 남겨 오늘 밤에 놀기를 원하나니
큰 칼로 또 계수나무를 베고 새봄에는 돌아가려나.
마구간에 말이 없을 만큼 손님이 적어 가련한데
숲에 깃든 까마귀는 희미한 횃불을 개의치 않는다.
조출한 술자리 끝나가도 여전히 졸고 있나니
이불은 차고 휘장은 얇은데 누구에게 의지할꼬?

소식의 원시는 타향에서 쓸쓸하게 선달그믐을 맞게 된 소식이 자신의 처량한 심사를 읊은 것인데, 정사룡도 몇 년째 타향살이를 하던 중에 또한 번의 선달그믐을 맞게 되자 소식의 이 시를 떠올리고 이에 화운했다. 정사룡은 소식 원시의 “多謝殘燈不嫌客，孤舟一夜許相依”라는 두 구절을 “除却燈花伴客微”라는 한 구절로 압축하여, 오직 등불만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외로운 상황을 형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소식의 원시와 연결하여 소식이라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홀로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면, 명절이 될 때마다 고향 생각이 배가되는(獨在異鄉爲異客，每逢佳節倍思親)”¹²⁾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인 듯, 정사룡 이외에도 소식의 이 시에 화운한 조선 문인들이 적지 않은데,¹³⁾ 이들의 화소시에는 하나같이 소식처럼 타향에서 선달그믐을 맞게 된 자신들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5번 金春澤(1670~1717)의 화소시와 소식 원시는 모두 요절한 아들을 애도한 시이고, 6번 申欽(1566~1628)의 화소시와 소식 원시는 모두 유배지에서의 복잡한 감회를 읊은 시로, 이들 화소시 역시 창작 배경 및 주제가 소식 원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화소시를 통해 볼 때, 수많은 고려·조선 문인들이 소식의 시를 읽으면서 깊이 공감하는 한편 소식과 모종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리하여

12) 王維(趙殿成 箋注), 〈九月九日憶山東兄弟〉(四庫全書本 《王右丞集箋注》 卷14)

13) 蘇世讓·鄭士龍·崔昱·金昌協·南漢紀·尹淳·金履萬·趙龜命·閔遇洙·姜世兪·李敏輔·李書九·姜獻奎 등 13명의 조선 문인이 지은 19수의 화소시가 현전한다.

비록 소식이 결코 자신의 시를 읽어 줄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그의 시에 화운하는 행위를 통해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초연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소식의 달관한 태도는 오래도록 많은 문인들의 추앙심을 불러일으켰고, 감화력이 큰 그의 글은 널리 읽히고 사랑받았다. 특히 고려·조선 문인들 가운데 유배지에서 적극적으로 화소시를 지은 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¹⁵⁾, 그것은 아마도 한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상대가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 소식의 이러한 태도와 인생관을 배워 비애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나눌 사람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그들에게 소식은 누구보다도 진정한 벗이 되어 주었고 그의 시

14) 대중음악 작사가 김이나는 에세이 <위로>에서 “마치 화자 자체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이고 아픈, 비극적인 그런 표현에서 묘하게 위로와 공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위로를 준다고 함은 자고로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가사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힘들어하는 가사 속의 화자가 자신들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더 위로를 느끼더라고요”(《보통의 언어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20, 223쪽)라고 했다. 이 말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픔을 치유한다. 이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의 위안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슬픔을 삭이고 고난을 극복할 동지를 만난 느낌이 들어 다시 살아갈 힘이 조금이나마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5) 일례로, 신흠은 유배지에서 소식을 떠올리며 화소시를 여러 차례 지었는데, 이는 거의 평생을 유배 생활과 지방관 생활로 인해 중국 전역을 전전하면서도 항상 초연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소식을 본받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 <동파의 <이사> 시의 운에 차운하다(次東坡遷居韻)> (《象村集》 卷6)에서 “소동파라는 신선은 혜주에 있을 때, 매일같이 여지 먹는 것을 자랑했거니와, 이 늙은이 취향이 나와 같은데,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蘇仙在惠州, 漫誇日啖荔, 伊翁吾臭味, 恨末生同世)”라며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 정약용은 康津 유배 중에 지은 화소시 <늦은 봄날 홀로 앉아서(晚春獨坐)> (《與猶堂全書》 卷4)에서 “소동파의 유배지 시에 세세히 화운한다(細和東坡謫裏詩)”라고 한 후, 실제로 소식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에 집중적으로 화운하여 14세 36수라는 적지 않은 화소시를 지었다. 이밖에도, 金壽恒·金正喜·趙熙龍 등 많은 고려·조선 문인들이 유배지에서 소식의 시에 화운하여 적지 않은 화소시를 남겼다.

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처방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식과의 정신적 교감을 위하여 지은 이런 종류의 화소시는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신의 작시 훈련을 위한 화소시 창작

고려·조선 문인들은 소식의 시를 작시의 典範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작시 훈련을 위해 화소시를 짓기도 했다. 이런 면에 있어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險韻의 사용이나 엄격한 詩畵의 적용 등으로 난도를 더 높여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도 했다.

먼저, 險韻을 사용한 소식의 시에 화운한 예를 살펴보자.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고려·조선 문인들이 화운의 대상으로 삼은 소식의 시는 280여 수이다. 그들이 특별히 잘 알려진 소식의 시 몇 수에만 국한하여 화운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에 다양하게 화운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중 일부 작품은 수십 명의 문인에 의해 수차례씩 화운의 대상이 되기도 한바, 고려·조선 문인들에게 가장 많이 화운의 대상이 된 소식의 시는 <눈이 내린 뒤 북대의 벽에 쓰다(雪後書北臺壁二首)>로 38인에 의해 117수나 지어져 다른 시에 비해 화운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¹⁶⁾ 소식의 이 시에 대한 화운의 배경과 구체적인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작자의 생졸 연도, 화소시의 수량 그리고 소식 원시의 其一과 其二 중 어느 시에 화운한 것인지 등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16) 그 다음으로 많이 화운의 대상이 된 소식 시는 <十一月二十六日, 松風亭下, 梅花盛開>와 <四時詞四首>이다. 이들 시에 대한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는 각각 39인의 58수, 13인의 52수이다.

〈표 2〉 소식의 〈雪後書北臺壁二首〉에 대한 화소시 창작 상황

| | 화소시 작가 | 생졸 연도 | 화소시 수량 | 其一 | 其二 |
|----|--------|-----------|--------|----|----|
| 1 | 李仁老 | 1152~1220 | 1제 1수 | 0 | 1 |
| 2 | 徐居正 | 1420~1488 | 1제 1수 | 0 | 1 |
| 3 | 成俔 | 1439~1504 | 1제 2수 | 1 | 1 |
| 4 | 蔡壽 | 1449~1515 | 1제 4수 | 2 | 2 |
| 5 | 李滉 | 1501~1570 | 2제 3수 | 1 | 2 |
| 6 | 崔演 | 1503~1549 | 2제 2수 | 1 | 1 |
| 7 | 李洪男 | 1515~1572 | 2제 4수 | 2 | 2 |
| 8 | 盧守愼 | 1515~1590 | 2제 4수 | 2 | 2 |
| 9 | 高敬命 | 1533~1592 | 2제 8수 | 4 | 4 |
| 10 | 河沆 | 1538~1590 | 1제 1수 | 0 | 1 |
| 11 | 崔昱 | 1539~1612 | 5제 16수 | 8 | 8 |
| 12 | 李晬光 | 1563~1628 | 1제 4수 | 2 | 2 |
| 13 | 申欽 | 1566~1628 | 2제 6수 | 3 | 3 |
| 14 | 李時發 | 1569~1626 | 1제 2수 | 1 | 1 |
| 15 | 李民宥 | 1570~1629 | 2제 8수 | 4 | 4 |
| 16 | 李安訥 | 1571~1637 | 1제 3수 | 0 | 3 |
| 17 | 具峯 | 1614~1683 | 1제 1수 | 0 | 1 |
| 18 | 李惟樟 | 1625~1701 | 1제 2수 | 1 | 1 |
| 19 | 姜錫圭 | 1628~1695 | 1제 1수 | 1 | 0 |
| 20 | 朴世堂 | 1629~1703 | 1제 2수 | 1 | 1 |
| 21 | 李敏敍 | 1633~1688 | 1제 2수 | 1 | 1 |
| 22 | 金錫胄 | 1634~1684 | 1제 2수 | 1 | 1 |
| 23 | 申厚載 | 1636~1699 | 1제 1수 | 1 | 0 |
| 24 | 李沃 | 1641~1698 | 1제 2수 | 1 | 1 |
| 25 | 吳道一 | 1645~1703 | 1제 1수 | 1 | 0 |
| 26 | 李寅燁 | 1656~1710 | 1제 2수 | 1 | 1 |
| 27 | 朴泰漢 | 1664~1698 | 1제 1수 | 1 | 0 |
| 28 | 任守幹 | 1665~1721 | 1제 4수 | 4 | 0 |
| 29 | 崔昌大 | 1669~1720 | 4제 6수 | 2 | 4 |

| | 화소시 작가 | 생졸 연도 | 화소시 수량 | 其一 | 其二 |
|----|--------|-----------|----------|-----|-----|
| 30 | 金履萬 | 1683~1758 | 1제 2수 | 1 | 1 |
| 31 | 尹鳳五 | 1688~1769 | 1제 2수 | 1 | 1 |
| 32 | 李匡呂 | 1720~1783 | 1제 1수 | 0 | 1 |
| 33 | 李忠翊 | 1744~1816 | 2제 8수 | 3 | 5 |
| 34 | 洪仁謨 | 1755~1812 | 1제 1수 | 1 | 0 |
| 35 | 沈象奎 | 1766~1838 | 3제 4수 | 2 | 2 |
| 36 | 鄭元容 | 1783~1873 | 1제 1수 | 1 | 0 |
| 37 | 鄭堦 | 1799~1879 | 1제 1수 | 1 | 0 |
| 38 | 姜晉奎 | 1817~ ? | 1제 1수 | 1 | 0 |
| 합계 | 38인 | | 55제 117수 | 58수 | 59수 |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전하는 화소시 가운데 소식의 〈눈이 내린 뒤 북대의 벽에 쓰다(雪後書北臺壁二首)〉¹⁷⁾에 대한 첫 번째 화소시와 마지막 화소시는 각각 고려 중기 문인 李仁老(1152~1220)의 시와 조선 후기 문인 姜晉奎(1817~?)의 시이다. 이를 통해 소식의 이 시에 대한 화운이 약 700년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이토록 오랜 기간 소식의 이 시에 화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우선 소식의 원시를 살펴보자.

其一

黃昏猶作雨纖纖，
夜靜無風勢轉嚴。
但覺衾裯如澆水，
不知庭院已堆鹽。
五更曉色來書幌，
半夜寒聲落畫簷。
試掃北臺看馬耳，

황혼에는 아직까지 부슬부슬 비가 왔기에
고요한 밤에 바람 자고 날씨가 추워져도
이불에 물 뿌린 듯한 느낌이 들었을 뿐
정원에 이미 소금이 쌓인 줄은 몰랐다.
오경의 새벽 빛이 환히 서재를 찾아오는데
한밤중의 찬 소리가 단청 처마에서 떨어지기에
북대의 눈을 끌고 마이산을 한번 바라보니

17) 蘇軾(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602-605쪽.

未隨埋沒有雙尖。

눈에 덮이지 않은 것은 두 봉우리뿐이다.

其二

城頭初日始翻鵝,
陌上晴泥已沒車。
凍合玉樓寒起粟,
光搖銀海眩生花。
遺蝗入地應千尺,
宿麥連雲有幾家。
老病自嗟詩力退,
空吟冰柱憶劉叉。

성 위에 아침해 뜨고 까마귀 날기 시작하자
햇살 받은 진흙 길에 이미 수레가 빠지는구나.
얼어 붙은 옥누각엔 추위로 소름이 생기고
반짝이는 은빛 바다는 눈이 부서 어지럽구나.
누리 알이 땅속으로 천 자나 파고 들어갈 터
보리가 구름까지 이어진 집이 몇 집이나 되려나?
늙고 병들어 시 짓는 힘이 쇠퇴해졌다 자탄하고
〈고드름〉 시나 읊으며 유차를 그리누나.

이 시는 소식이 密州의 설경을 보고 그 감회를 읊어 密州城 위에 있던 北臺의 벽에 써 놓은 것이다. 이 시에 대해 陸游는 “소문충공(소식)의 문집에 ‘尖’자·‘叉’자 운을 사용하여 눈을 노래한 시가 있고 왕문공(王安石)의 문집에는 또 소식의 운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있는데 논자들이 말하기를 ‘이들 두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렇게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 예주통판 성숙 여문지는 마침내 단번에 100편을 화운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절묘하여 억지로 끝어다 붙인 병폐가 없다(蘇文忠集中有雪詩, 用尖·叉二字, 王文公集中又有次蘇韻詩, 議者謂: “非二公莫能爲也.” 通判澧州呂文之成叔, 乃頓和百篇, 字字工妙, 無牽強湊泊之病)”¹⁸⁾라고 했다. 이처럼 많은 시인들이 소식의 이 시에 화답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험운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설경을 실감 나고 감칠맛나게 잘 묘사해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선 중기 문인 李滉(1501~1570)도 소식의 이 시에 세 차례 화운했는데, 그중 〈동파의 시운을 사용하여 도중에 눈을 만나 나에게 보낸 시에 화답하다(酬途中遇雪見寄詩, 用坡韻)〉에서 “꽁꽁 언 채 읊조리는 병든 나그네가 참 우습구나, 험운이라 화답하기 어려우매 몇 번이고 손을 깎지 끼네(凍吟病客眞堪笑, 險韻難酬

18) 陸游, 〈跋呂成叔和東坡尖叉韻雪詩〉[《渭南文集》(四庫全書本) 卷30]

手屢又”¹⁹⁾라고 하여 이 시 其一의 운자인 ‘尖’과 其二의 운자인 ‘又’가 모두 험운에 속하여 화운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에 화운하려고 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압운하기 어려운 험운임에도 소식은 참신한 표현의 사용과 자연스러운 시상 전개로 훌륭한 시를 완성함으로써 후대 문인들의 화운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당시 문인들의 화운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 소식의 <다른 사람이 나의 앞 시에 화운한 것에 감사하다(謝人見和前篇二首)>²⁰⁾라는 시를 통하여 이러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대한 화소시 창작 열풍은 비단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고려·조선 문인들에게도 유행처럼 퍼져나가, 38인의 문인들에 의해 117수나 되는 화소시가 지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소식의 시가 많은 문인들에게 도전 정신과 경쟁심을 자극하여 자신들도 소식의 시에 비견할 만한 시를 지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많은 화소시가 지어진 것이 소식과 詩才를 비견해 보고자 하는 문인들의 도전 정신과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 초기 문인 蔡壽(1449~1515)는 이 시에 네 차례 화운했는데, 이 시의 서문에서 창작 배경 및 목적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그의 화소시 가운데 其二와 서문을 함께 살펴보자.

소동파가 눈을 읊은 시에 차운하여 차소(申從濩)에게 부치다(次東坡雪詩, 寄次韶)²¹⁾

소 선생의 ‘又’자와 ‘尖’자를 운자로 쓴 시 두 수는 고금의 절창입니다. 왕개

19) 李況, 《退溪先生文集別集》(韓國文集叢刊本) 卷1.

20)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 <雪後書北臺壁二首>에 찬화한 것을 보고 이에 감사의 의미로 다시 차운하여 두 수를 지은 것이다. <雪後書北臺壁二首>는 王安石·呂文之 등 당시 문인들의 唱和詩가 굉장히 많았거니와 왕안석이나 여문지가 이 시를 보기도 전인 눈이 내린 직후에도 密州 문인들이 北臺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번갈아 찬화시를 지었는데 <謝人見和前篇二首>는 이에 대하여 다시 찬화한 시인 것으로 보인다. 蘇軾(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04쪽 참조.

21) 蔡壽, 《懶齋集》(韓國文集叢刊本) 卷2.

보(王安石)·호방형(趙蕃)·조창보(趙蕃) 등이 다들 나름대로의 대가들인데 끊임없이 추화했지만 모두 소식 원시와 비슷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후인들이 앞에 아주 훌륭한 시가 있다면 화운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빈정했습니다. 하물며 학문이 얕은 후배가 변변찮은 재주로 추화하고자 하니 이는 한바탕 웃음을 자아낼 만한 일로 정말이지 이른바 어린아이들이 벌레를 아로새긴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황당하고 졸렬하다 알보지 말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蘇子又尖二詩, 今古絕唱. 王介甫·胡邦衡·趙昌父輩皆太平筆, 追和不已, 而皆不得其彷彿, 後人譏其十分好詩在前, 似不當和也. 況後生末學, 以襪線之才欲追和, 可發一笑, 眞所謂童子雕蟲者也. 雖然, 勿以荒拙鄙之, 和教幸甚.)

其二

慘慘寒威集暮鴉,
隨風萬片趁飛車.
佳人自昔工回舞,
天女如今又散花.
赤縣變爲銀色界,
荒村化作玉皇家.
由來絕景詩難狀,
濫子何能手八叉.

스산한 추위의 위세 속에 저녁 까마귀 모여들고
바람 따라 만 조각이 나는 수레를 따라가네.
가인이 예전부터 빙빙 돌며 춤추기를 잘했는데
천녀가 지금 또 꽃을 뿌리네.
적현은 은세계로 변해 버렸고
황량한 마을은 옥황상제의 집이 되었네.
원래 빼어난 경치는 시로 형용하기 어렵나니
온 선생인들 어찌 각지 여덟 번에 읊을 수 있으리?

이것은 채수가 신중호에게 보낸 시로, 서문에서 비록 자신의 시재가 소식을 따라갈 만큼 뛰어나지 못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화소시를 지었으니 비웃지 말고 자신의 화소시를 읽어 본 후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다. 또한 그는 其二의 제7~8구에서 시재가 뛰어나 여덟 번 두 손을 각지 깰 동안에 금방 八韻의 시를 완성하여 ‘濫八叉’라고 불렀던 濫庭筠²²⁾도 그 절경을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충을 토로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은근히 자신이 비록 소식 같은 대가에게는 못 미칠지라도 어

22) 王定保, 《唐摭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121쪽 참조.

는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렀다는 자부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조선 초기 문인 徐居正(1420~1488)도 소식의 이 시에 화운했는데, 그도 역시 소식 원시와 자신의 시를 비교하며 이 시에 화운하기 어려운 고충을 털어놓았다.²³⁾

이처럼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려·조선 문인들이 소식의 이 시에 끊임없이 화운한 이유는 소식의 이 시를 학습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화운하며 이를 통해 시 짓기를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완수했을 때보다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완수했을 때 훨씬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도전 정신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나 통과하기 어려운 게임을 좋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고려·조선 문인들 역시 이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시에 화운하는 시를 지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식의 원시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만한 훌륭한 시를 지어 보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화소시를 지었던 다른 문인들과 시재를 견주어 보며 그들보다 더 나은 작품을 남겨 보고 싶은 욕심도 함께 작용하였을 것 같다. 그리하여 마침내 훌륭한 시를 창작해 낼 수 있다면, 자신의 시가 소식 시에 비견할 만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고려·조선 문인들이 소식 시 가운데 詩습이 엄격한 시를 선택하여 그것에 화운한 것 역시 시 짓기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식의 시 〈취성당의 눈(聚星堂雪)〉에 화운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조선 문인들의 화소시 가운데 이 시에 화운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시들이 있다.

23) 서거정은 〈소동파의 눈을 노래한 시운에 차운하여 왕형공(왕안석)을 본뜨다(次東坡咏雪詩韻 効荊公)〉에서 “미산이 시를 읊을 때는 재치 있는 생각이 많았는데, 졸렬한 시구를 읊고 나니 온팔차에게 부끄럽네(眉山題詠多才思, 拙句吟成愧八叉)”라고 했다. 徐居正, 《四佳詩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참조.

丁壽崗, 〈聚星堂用東坡韻, 禁體〉

林得明, 〈石渠直中值雪, 與好古齋·存齋·睡軒·六雲居士·樹軒, 次東坡聚星堂咏雪韻〉

李尚迪, 〈晦淫潦大作, 用東坡聚星堂雪詩韻, 寄呈斗室相國〉

朴珪壽, 〈雪夜次東坡聚星堂韻, 賦水仙花〉

黃玪, 〈酬二山和東坡聚星堂雪詩韻見寄〉

趙熙龍, 〈是日, 步坡公〈聚星堂雪〉禁體物詩韻, 二首〉

소식은 취성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歐陽修가 예전에 體物語의 사용을 금지하여 시를 지었던 일을 떠올리고 당시 詩습을 그대로 적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취성당의 눈(聚星堂雪)〉²⁴⁾을 지었다. 이 시는 총 20구로 이루어진 장편시인데, 다음은 그 시의 서문과 시의 마지막 네 구절이다.

원우 6년 11월 1일에 장용공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여 눈이 조금 내렸기에 취성당에서 손님들과 모여 술을 마셨다. 문득 구양수가 태수를 지내실 때 눈이 내리는 중에 손님들과 시를 짓되 사물의 형상을 묘사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기이하고 아름다운 시가 나왔던 일이 생각났다. 그 뒤로 4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일을 계승한 사람이 없었다. 나는 늙은 문생으로서 공의 뒤를 이었으니 비록 선생을 뒤쫓아 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빈객들의 훌륭함은 아마도 당시에 뒤지지 않을 것이고 공의 두 아들도 마침 이 고을에 있으므로 즉시 이전의 詩습에 따라 각각 한 편씩 읊었다.(元祐六年十一月一日, 禱雨張龍公, 得小雪, 與客會飲聚星堂. 忽憶歐陽文忠公作詩時, 雪中約客賦詩, 禁體物語, 於艱難中特出奇麗. 爾來四十餘年, 莫有繼者. 僕以老門生繼公後, 雖不足追配先生, 而賓客之美, 殆不減當時, 公之二子, 又適在郡, 故輒舉前令²⁵⁾, 各賦一篇.)

.....

.....

24) 蘇軾(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1813-1814쪽.

25) 구양수의 시 〈雪〉에 “당시 영주에서 지었다. ‘玉’·‘月’·‘梨’·‘梅’·‘練’·‘絮’·‘白’·‘舞’·‘鸚’·‘鶴’·‘銀’ 등의 글자는 모두 쓰지 못하게 했다(時在潁州作. ‘玉’·‘月’·‘梨’·‘梅’·‘練’·‘絮’·‘白’·‘舞’·‘鸚’·‘鶴’·‘銀’等字, 皆請勿用)”라는 自註가 달려 있다. 歐陽修, 《文忠集》(四庫全書本) 卷30 참조.

| | |
|----------|--------------------------|
| 汝南先賢有故事, | 여남 고을 선현에게 선례가 있었는데 |
| 醉翁詩話誰續說. | 취옹의 시 이야기 누가 이어 얘기했나? |
| 當時號令君聽取, | 그 당시의 작시 규칙을 들어 보게나. |
| 白戰不許持寸鐵. | 백전이라 한 치짜리 무기도 들 수 없었다네. |

인용한 부분 가운데 앞 두 구절은 바로 소식 자신이 구양수를 계승해서 體物語 사용을 금지하여 시를 지었다는 뜻이고, 다음 두 구절은 體物語를 사용하지 않고 시를 짓는 것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전쟁에 비유함으로써 그만큼 시를 짓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 문인들은 소식의 이 시를 읽다가, 소식이 구양수를 계승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다시 소식을 계승하여 동일한 詩畵를 적용해서 禁體物語詩를 지어 보았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소식의 이 시에 화운까지 함으로써 난도를 한층 더 높여 ‘놀이’²⁶⁾를 더욱 고급화했다.

놀이를 고급화하고 작시 훈련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는 聯句 형식의 화소시 창작도 좋은 방법이 되었다.²⁷⁾ 聯句詩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사람이 지은 시구를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지어야 하기에 상당히 짓기 어렵다. 게다가 이 경우는 화소시이기 때문에 소식 원시의 정해진 운자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더욱 심한데, 이러한 제약 속에서 다른 문인들과 호흡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聯句의 방식으로 화소시를 짓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문우들과 서로 시재를 비견해 봄으로써 자신의 작시 능력을 절차탁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²⁸⁾

26)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는 “시를 짓는 것은 사실상 놀이 기능이다 (Poiesis, in fact, is a play-function)”라고 한 바 있다. J.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Boston: The Beacon Press, 1964, 119쪽 참조.

27) 聯句 형식의 화소시 창작에 대해서는 제IV장에서 상술한다.

28) 이와 관련하여 강필임은 “연구는 여러 사람의 합작품이기는 하나, 집단 창작은 아니다. 각 구, 각 연마다 작자를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시인 각 개인의 재능을 경쟁적으로 발휘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시회의 탄생》,

소식이 자신의 화도시 창작 행위에 도연명을 향한 흠모뿐 아니라 도연명과 시재를 비견해 보고자 하는 심리도 반영되어 있었다고 자술한 것처럼,²⁹⁾ 고려·조선 문인들에게도 화소시 창작을 통해 자신의 시재를 소식 및 다른 문우들과 비견해 보고 싶은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이 자신들의 시 짓기를 훈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문우들과의 교류를 위한 화소시 창작

화답시는 본래 동시대의 문우들이 서로 주고받은 시였다. 그런데 고려·조선 문인들은 옛날 사람인 소식의 시에 追和하는 방식을 문우들 사이의 교류 수단으로 삼은 예가 많았다. <표 3>에 그중 일부를 예시한다.

<표 3> 문우들 사이에 주고받은 고려·조선 문인의 화소시 사례

| | 시인 | 화소시 제목 |
|---|-----|-------------------------------|
| 1 | 徐居正 | 除夕, 用東坡韻寄成和仲, 二首 |
| 2 | 金正喜 | 次東坡風水洞韻, 寄又淸道人 |
| 3 | 李建昌 | 次東坡潁州別子由韻寄保卿 |
| 4 | 鄭士龍 | 追用去歲和東坡慈湖峽阻風韻, 寄呈希剛公 |
| 5 | 李奎報 | 暮春, 同崔博士甫淳, 訪尹注簿世儒, 置酒用東坡詩韻各賦 |
| 6 | 徐居正 | 讀東坡, 用集中韻, 與李胤保同賦 |
| 7 | 周世鵬 | 與宋眉叟共次東坡韻 |

과주: 한길사, 2016, 201쪽)라고 했다.

29) 소식은 자신이 지은 화도시를 두고 “내가 전후하여 그의 시에 화답한 것이 모두 백 수십 편인데, 득의한 데에 이르면 도연명에게 부끄럽지 않다(吾前後和其詩凡百數十篇, 至其得意, 自謂不甚愧淵明)”[蘇轍(會棗莊·馬德富 校點), 《欒城後集》 卷21(《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子瞻和陶淵明詩集引>]라고 했다.

| | 시인 | 화소시 제목 |
|----|-----|-----------------------|
| 8 | 姜樸 | 花山衙賞梅, 與主人同次東坡韻題龕 |
| 9 | 成俔 | 賀邵鎮七十生子, 鎮求用東坡賀陳述古生子韻 |
| 10 | 吳弘默 | 李蕙荃用東坡韻, 要余和之, 因次韻 |
| 11 | 吳弘默 | 蕙荃用東坡韻索和, 走筆次之 |

〈표 3〉에 예시한 시는 문우들 사이에 주고받은 화소시 가운데 일부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현전하는 고려·조선 화소시 가운데 문우들 사이에 주고받은 화소시는 약 150수로 전체 화소시의 근 20%에 달할 정도이니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의 1~4번 시는 시제에 사용된 ‘壽’·‘壽望’이라는 글자를 통해 자신과 함께 있지 않는 문우에게 시를 지어서 부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대 문인들은 서신 대신 시를 주고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고려·조선 문인들은 화소시를 서신 대신 주고받기도 했다.

이 경우와는 다르게, 5~11번처럼 여러 문우가 宴會·詩會 등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거나 소식의 시를 읽다가 함께 화소시를 짓기도 했다. 특히 5~8번 시의 경우 시제의 ‘各賦’·‘同賦’·‘共次’·‘同次’와 같은 글자를 통해 여러 문우가 동석에서 각자 화소시를 한 수 혹은 여러 수 지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황은 평소 和詩로써 교류하기를 좋아하여 문우들과 교류할 때 종종 古人들의 詩韻을 활용하기도 했는데,³⁰⁾ 〈표 3〉에는 예시하지 않았지만 그

30) 이종호의 〈퇴계 수창시의 양상과 의의〉(《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7호, 2010, 259~260쪽)에 “퇴계는 편지 못지 않게 수창을 즐겼다. 퇴계는 초면이든 구면이든 사람을 만나면 으레 수창을 청했던 것 같다. 특히 문생들에게는 수창을 종용하다시피 했다. …… 수창을 즐겼으니 수창시를 많이 남겼을 터이고, 실제로 대강 그의 문집을 일별해 보면, 수창을 계기로 지어진 작품이 전체 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필자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退溪先生文集》에 수록된 이황의 시 가운데 수창시의 비율이 약 1/3 정도이니 과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에게도 <동파의 시운을 사용하여 중추절의 달을 읊은 시를 사수에게 부치다(中秋月, 寄士逯, 用東坡韻)³¹⁾·<농암 선생을 뵈었더니 선생이 시첩에게 달밤에 살구꽃 밑에서 술 마신 감회를 읊은 동파의 시를 노래하게 해 놓고 그 운자에 맞추어 시를 지어서 보여 주기에 나도 화운하여 바치다(拜龔巖先生, 先生令侍兒歌東坡月夜飲杏花下詩, 次其韻示之, 澁亦奉和呈上)>³²⁾·<절우단의 매화는 늦봄이 되어야 비로소 핀다. 그 옛날 갑진년 봄에 동호에서 망호당으로 매화를 찾아가 시를 두 수 지은 일이 생각나거니와 어느덧 19년이 되었다. 이 때문에 화운하는 시를 다시 한 수 더 지어 나의 옛날 추억과 지금의 감회를 토로하여 함께 지내는 벗들에게 보여 준다(節友壇梅花, 暮春始開. 追憶往在甲辰春, 在東湖, 訪梅於望湖堂, 賦詩二首, 忽忽十九年矣. 因復和成一篇, 道余追舊感今之意, 以示同舍諸友)>³³⁾ 등의 화소시가 있으니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였던 이황도 종종 소식의 시운을 교유의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³⁴⁾

자신이 자발적으로 먼저 소식의 시에 화운한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먼저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었으니 9~11번 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9번 成俔(1439~1504)의 <소진이 일흔 살에 아들 낳은 일을 축하하는바, 소진이 진술고가 아들을 낳은 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동파 시의 운자를 써서 지어 달라고 요구하다(賀邵鎮七十生子, 鎮求用東坡賀陳述古)³⁵⁾生子

31)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韓國文集叢刊本) 卷1.

32) 李滉, 《退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卷1.

33) 李滉, 《退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34) 조선 중기 무렵에는 성리학이 성행하면서 문단 내에 소식을 추앙하는 열기가 이전에 비해 많이 식었는데, 이는 洛蜀黨爭과 관련이 깊다. 낙축당쟁은 北宋 元祐(1086~1093) 연간에 程顥·程頤를 중심으로 한 洛黨과 蘇軾·蘇轍을 중심으로 한 蜀黨 간의 학문적 다툼이 발전하여 정치적 암투로까지 이어진 당파간의 분쟁을 말한다. 이후 洛派를 계승한 程朱學派, 즉 성리학자들이 蜀派의 영수였던 소식을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 조선의 성리학자들 역시 대다수가 이 영향을 받아 소식의 위인·학술뿐 아니라 그의 문학까지 비판하게 되었다. 朱熹 編, 《二程外書》(四庫全書本) 卷11 〈時氏本拾遺〉 및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四庫全書本) 卷393 〈哲宗元祐元年十二月壬寅〉 참조.

35) 현전하는 각종 판본의 소식 시에 다 ‘陳述古弟章’으로 되어 있을 뿐 ‘陳述古’

韻)》³⁶⁾는 늘그막에 아들을 낳은 邵鎭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아 지은 것으로, 성현이 스스로 소식의 시에 화운한 것이 아니라 소진이 성현에게 먼저 칭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소진은 <진술고의 동생 진장이 아들을 낳은 일을 축하하다(賀陳述古弟章生子)》³⁷⁾라는 소식 원시를 지정해 주기까지 한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소식의 이 시가 아들을 낳은 일을 축하한 시로 자신의 상황과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화소시를 통하여 문우들끼리 교류할 때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화소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다진 경우도 있었다.

먼저 고려 중기 문인 李奎報(1168~1241)의 경우를 살펴보자.

〈표 4〉 李奎報와 문우들 사이의 和蘇詩 酬唱 상황

| 소식 원시 <次韻穎叔觀燈> | | |
|-------------------------------------|---|-----------------------------|
| 이규보 화소시① <十月五日, 陳湜見訪, 留宿置酒, 用蘇軾詩各賦> | | |
| 진화 화소시②[散逸] | | |
| A | B | C |
| 진화 화소시③[散逸] | 문장로 화소시⑦[散逸] | 윤의 화소시⑨[散逸] |
| 이규보 화소시④ <後數日, 陳君見和, 復次韻答之>(2수) | 이규보 화소시⑧ <文長老見和, 多至九首, 每篇皆警策遲鈍, 勉強備數奉賡耳>(9수) | 이규보 화소시⑩ <尹同年儀見和, 復次韻贈之> |
| 진화 화소시⑤[散逸] | | |
| 이규보 화소시⑥ <陳君復和, 又次韻贈之>(2수) | | |

이규보의 화소시①과 진화의 화소시②는 같은 날 술자리에서 함께 지은 것이다.³⁸⁾ 그런데 이들의 수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진화는 얼마 후

로 되어있는 판본이 하나도 없다. 소식의 이 시와 성현의 시에 사용된 운자가 일치하고 소식의 시 가운데 진술고의 생남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성현이 화운한 소식의 원시가 이 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36) 成倪, 《虛白堂詩集》(韓國文集叢刊本) 卷11.

37) 蘇軾(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521-522쪽.

이규보의 화소시①에 화운하여 화소시③을 지었고, 이규보가 다시 이 시에 화운하여 화소시④를 지었다. 그 후에도 진화와 이규보는 한 차례씩 더 화운하여 각각 화소시⑤·⑥을 지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규보의 화소시①에 대해 문장로와 윤이도 각각 화소시 ⑦·⑨를 지었고,³⁸⁾ 이규보가 이에 각각 화운하여 화소시 ⑧·⑩을 지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규보 화소시①에 대해 진화·문장로·윤의 등 세 명의 문인이 각각 이규보에게 화운했고 이규보가 다시 이 시에 각각 화운하면서 ‘이규보-진화’(A), ‘이규보-문장로’(B), ‘이규보-윤의’(C)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뉘어 별도의 화소시 창작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규보-진화’(A)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창했다.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이 반복 수창 과정에서 이규보는 총 15수의 화소시를 짓게 되었다. 이들이 화소시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소시를 매개로 문우들 간에 ‘以詩爲交’하는 풍조는 조선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다음은 조선 중기 문인 崔岌(1539~1612)과 申欽(1566~1628)이 수차례 연속해서 주고받은 화소시이다.

〈표 5〉 崔岌과 申欽의 和蘇詩 酬唱 상황

| | 소식 원시 | 최입 화소시 | 신흥 화소시 |
|---|----------|-------------|-------------|
| 1 | 雪後書北臺壁二首 | 雪後, 次東坡韻四首 | 次東臯雪後次東坡韻二首 |
| 2 | | 微雪, 復次坡詩韻四首 | 次東臯微雪用東坡韻四首 |

38) 진화의 화소시는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규보 화소시①의 시제를 통해 이들이 당시 함께 화소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39) 이규보와 진화가 함께 화소시를 짓던 무렵, 문장로와 윤의도 동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규보 화소시①의 시제에 문장로와 윤의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들이 동석했다고 하더라도 화소시를 함께 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장로와 윤의의 동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진화처럼 이규보와 함께 그 자리에서 화소시를 지은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로 이규보의 화소시①에 화운한 것으로 보인다.

| | 소식 원시 | 최입 화소시 | 신흙 화소시 |
|---|---|----------------------------|-----------------|
| 3 | 龜山 | 鞍山道中, 次東坡龜山韻, 因效其首語而成 | 次東阜鞍山道中次東坡龜山韻 |
| 4 | 汲江煎茶 | 牛家庄泉水甚惡不可飲, 取雪救渴, 次東坡汲江煎茶韻 | 次東阜牛家庄 |
| 5 | 立春日, 病中邀安國, 仍請率禹功同來, 僕雖不能飲, 當請成伯主會, 某當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二首 | 立春日, 次東坡韻二首 | 次東阜用東坡人日病中邀客韻二首 |
| 6 | 杖策倚几於其間, 觀諸公醉笑, 以撥滯悶也二首 | 元日, 疊立春日韻二首 | 次東阜元日用立春韻二首 |
| 7 | 除夜野宿常州城外二首 | 除夜, 次東坡韻二首 | 次東阜用東坡除夜韻二首 |

신흙 화소시의 시제가 모두 ‘次東阜’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최입이 먼저 화소시를 짓고 신흙이 또 그의 화소시에 화운하는 화소시를 짓는 형식으로 반복 수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화소시 반복 수창은 최입과 신흙이 각각 奏請副使와 書狀官의 신분으로 함께 명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⁴⁰⁾ 평소 최입의 시를 좋아했던 신흙이 최입의 화소시에 하나하나 화운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화소시를 매개로 이들 두 문인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Ⅲ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조선 문인들은 聯句 형식의 화소시

40) 최입의 화소시가 전부 그가 명나라로 사행 갔을 때 지은 시를 모아 놓은 《甲午行錄》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 신흙이 〈晴窓軟談·下〉에서 “간이 최입은 …… 내가 그와 더불어 京師(명나라의 도성인 지금의 北京)로 갈 때 길 위에서 酬唱한 시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시구들을 좋아했다(崔簡易曰, …… 余同赴京師, 沿路唱酬甚多, 嘗喜其詩句)”(韓國文集叢刊本 《象村稿》 卷60)라고 한 말, 최입이 〈甲午行錄後序〉에서 “나는 소동파의 시에 익숙하지 않다. 갑오년에 경사로 갔는데, 본국에는 전쟁으로 인해 서책들이 없어졌기에 소동파의 율시집 한 권을 사 보았을 뿐이다(余非熟東坡詩, 甲午如京, 爲本國書亡於兵火, 僅購看蘇律一本)”(韓國文集叢刊本 《簡易集》 卷7 《甲午行錄》)라고 한 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입과 신흙의 화소시 창작 시기와 창작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를 짓기도 했다. 聯句는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각자 한 구절 혹은 여러 구절을 연이어 지음으로써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작시 방식인데, 고려·조선 문인들은 聯句의 방식을 통해 여러 문인이 합작하여 한 편의 화소시를 짓기도 했던 것이다. 고려·조선 문인들이 聯句의 방식으로 지은 화소시로는 <표 6>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6> 고려·조선 문인들의 聯句 和蘇詩

| | 시인 | 화소시 시제 | 소식 원시 |
|---|-----------------------|--|----------|
| 1 | 白文寶 李毅 | 同李中父作梅花聯句, 用東坡韻 | 次韻李公擇梅花 |
| 2 | 南孝溫 正中·仲鈞 | 與正中乘月掛琵琶敲仲鈞門, 仲鈞聞琵琶聲, 倒屣出門. 設重茵杏花下設小酌, 次東坡月下詩韻聯句 | 月夜與客飲杏花下 |
| 3 | 金壽恒 昌集·昌協·昌翁·昌業·昌緝 | 用東坡夜坐與邁聯句韻, 與兒輩聯句 | 夜坐與邁聯句 |

이 가운데, 南孝溫(字 伯恭, 1454~1492)이 李貞恩(字 正中, ?~?)·李宗準(字 仲鈞, 1458~1499)과 함께 지은 2번 聯句詩를 살펴보자.

정중과 함께 달밤에 비파를 메고 중군의 대문을 두드리니, 중군이 비파 소리를 듣고 신을 거꾸로 신은 채 대문으로 달려 나왔기에 살구꽃 아래에 자리를 두 겹으로 깔고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한 후 소동파가 달빛 아래에서 지은 시에 차운하여 연구로 짓는다(與正中乘月掛琵琶敲仲鈞門, 仲鈞聞琵琶聲, 倒屣出門. 設重茵杏花下設小酌, 次東坡月下詩韻聯句)⁴¹⁾

琵琶撥雷催晚春,(仲鈞) 비파가 우렛소리 내어 늦봄을 다그칠 때
花下相逢皆可人.(伯恭) 꽃 아래에서 만난 이들 모두 훌륭한 사람이네.

41) 南孝溫, 《秋江集》(韓國文集叢刊本) 卷2.

| | |
|--------------|----------------------------|
| 清談未了瓶欲臥,(正中) | 청아한 얘기 끝나기 전에 술병은 비려 하고 |
| 山肴喫盡羞潤蘋,(仲鈞) | 산채를 다 먹어 가자 수초를 내어놓네. |
| 坐中秋江老狂發,(伯恭) | 좌중에 있던 추장은 늙은이의 광기가 발동하여 |
| 更把一椀心欲雪,(正中) | 술 한 잔을 다시 드니 마음이 씻어지려 하네. |
| 醉歸不妨犯金吾,(仲鈞) | 취하여 돌아가다 의금부에 걸려도 상관없나니 |
| 可忍虛拋此明月,(伯恭) | 이렇게 밝은 달을 헛되이 버릴 수 있으리? |
| 琉璃柱影入盞中,(仲鈞) | 유리로 된 계수나무가 잔 속에 들어오는 건 |
| 微雲捲盡長天空,(伯恭) | 얇은 구름 모두 걷혀 먼 하늘이 비어서라네. |
| 興來起舞影婆娑,(正中) | 흥이 나서 일어나 춤추니 그림자가 너울너울 |
| 何必高燒銀燭紅,(仲鈞) | 은초의 붉은 불을 높이 비출 필요가 뭐 있으리? |

仲鈞(A)·伯恭(B)·正中(C) 등 세 문인이 돌아가며 한 구절씩 짓다가 시의 후반부에서 정중(C)이 한 차례 빠지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이에 중균(A)·백공(B)·정중(C)이 각각 5구절·4구절·3구절씩 지어 최종적으로 A-B-C-A-B-C-A-B-A-B-C-A 형태의 聯句詩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여러 명의 문인이 돌아가면서 지은 시구로 완전한 한 수의 聯句詩를 짓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여러 문인이 함께 시를 지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감정을 공유하고 문학적으로 교감함으로써 수준 높은 놀이를 향유할 수 있다. 앞서의 詩想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최종적으로 한 편의 완성된 시를 쓰는 과정은 마치 여러 명이 한 팀으로 계주를 하거나 두 명 혹은 세 명이 2인3각이나 3인4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협동심이 필요한 작업 이기에, 함께 시를 완성하면서 여러 문인이 하나가 된 듯한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⁴²⁾ 또한 이렇게 시를 완성하고 나면 어려운 게임의

42) 이와 관련하여 오보라는 “연구시의 즐거움은 벗들과의 정을 나누는 데에 있다. 즉 연구시는 문인들 간에 마음을 소통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聯句詩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66집, 2017, 61쪽)라고 했으며, 이미진은 “연구시 창작을 통한 詩의 교류는 참여 원간의 문학적 교감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詩才를 비롯한 학문적 역량 뿐 아니라 서로간의 정서적 공감대가 비슷해야만 한 사람의 손에서 써내려간 듯 시구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聯句詩의 창작 방식과 배경 고찰—謙

관문을 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와 같은 성취감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聯句 방식을 통한 화소시 창작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은 문인들의 교유에 아주 적합한 방식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고려·조선 문인들이 화소시를 매개로 교유 활동을 전개하고 우의를 다진 것은 현대인들이 함께 각종 게임을 즐기는 것과 유사한바, 그 시대에 유행한 문인 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고려·조선 문인들의 화소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식과의 정신적 교감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들은 소식의 시를 애호함은 물론 소식의 위인도 흠모한 나머지 소식의 시를 익히 외우고 있다가 자신이 소식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식의 시를 떠올리며 그것에 화운했다. 이미 고인이 된 소식과 서로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마 소식과 교감하며 그로부터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결과였다.

둘째, 자신의 시 짓기를 훈련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옛날 시인들은 한자리에서 서로 시 짓기를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식의 경우 한자리에서 경쟁할 상대는 아니지만 그의 시에 화운한 뒤 그것을 소식의 원시와 비교해 보고 자신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 짓기를 훈련했다. 그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소식 시 가운데 험운에 화운하기도 하고 금체물어시와 같이 제약이 엄격한 시에 화운하기도 했으며,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두 구절씩 짓는 聯句 형식의 화소시를 짓기도 했다.

셋째, 문우들과의 교유 수단으로 지은 것이다. 옛날 시인들은 친구들과

齋 趙泰億의 사례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74집, 2019, 273-274쪽)라고 했다.

함께 주어진 운자로 시를 짓는 일종의 문자 유희를 즐기곤 했는데 고려·조선 문인들은 소식의 시운을 지정된 운자로 삼아 서로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 여러 사람이 聯句를 통해 한 편의 화소시를 완성하기도 하는 등 수준 높은 놀이를 즐기곤 했다.

소식과의 정신적 교감을 위한 화소시 창작과 자신의 작시 훈련을 위한 화소시 창작은 개인적 차원의 창작이다. 그러나 문우들과의 교유를 위한 화소시 창작은 소식 시를 애호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 자신들의 놀이에서 소식의 시운을 주어진 운자로 삼는 일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인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교유를 위한 화소시 창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袁行霈는 화도시 창작이 일종의 문화 현상이라고 했거니와, 고려·조선 문단에 있어서의 화소시 창작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개인적 창작 행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하나의 문화 코드로 발전하여 ‘화소시 문화’라는 하나의 문인 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 南孝溫, 《秋江集》(韓國文集叢刊本)
 徐居正, 《四佳詩集》(韓國文集叢刊本)
 成俔, 《虛白堂詩集》(韓國文集叢刊本)
 申欽,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李滉, 《退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李滉, 《退溪先生文集別集》(韓國文集叢刊本)
 鄭士龍, 《湖陰雜稿》(韓國文集叢刊本)
 丁若鏞, 《與猶堂全書》(韓國文集叢刊本)
 曹偉, 《梅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本)

- 蔡壽, 《懶齋集》(韓國文集叢刊本)
- 崔岵, 《簡易集》(韓國文集叢刊本)
-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四庫全書本)
- 陸游, 《渭南文集》(四庫全書本)
- 歐陽修, 《文忠集》(四庫全書本)
- 王維(趙殿成 箋注), 《王右丞集箋注》(四庫全書本)
- 朱熹 編, 《二程外書》(四庫全書本)
- 강필임, 《시회의 탄생》, 파주: 한길사, 2016.
- 蘇軾(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3》,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2016.
- 蘇軾(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 蘇轍(會棗莊·馬德富 校點),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王定保, 《唐摭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J.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Boston: The Beacon Press, 1964.
- 강지희, 〈退溪의 ‘和陶集飲酒二十首’에 나타난 陶淵明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 제44호, 2010.
- 김경동, 〈소식 시에 대한 이규보의 追和詩〉, 《중국어문학지》 제19호, 2005.
- 김남이, 〈佔畢齋 金宗直의 ‘和陶淵明述酒’가 읊은 역사와 현실의 문제—1475년(성종6) 겨울, 왜 陶淵明의 ‘述酒’인가?〉, 《코기토》 제81호, 2017.
- 김보경, 〈韓國 ‘和陶詩’ 研究 序說〉, 《중국문학》 제66집, 2011.
- 김상홍, 〈茶山の 〈和蘇長公東坡八首〉考〉, 《동아시아고대학》 제19호, 2009.
- 손팔주, 〈申緯와 蘇軾〉,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제3권, 1997.
- 오보라, 〈紅泉社의 결성과 시세계—聯句詩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66집, 2017.
- 유영봉, 〈良齋의 ‘和陶詩’에 관한 연구〉, 《간재학논총》 제16호, 2013.
- 이관성, 〈陶厓 洪錫謨의 和陶詩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4호, 2019.

- 이미진, 〈聯句詩의 창작 방식과 배경 고찰—謙齋 趙泰億의 사례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제74집, 2019.
- 이영숙, 〈晦峯 河謙鎭의 ‘和陶詩’와 東坡 蘇軾의 ‘和陶詩’ 比較研究〉, 《南冥學研究》 제39호, 2013.
- 이창룡, 〈退溪의 東坡受容樣相〉, 《국어교육》 제44권, 1983.
- 임준철, 〈조선 전기 和陶詩의 轉變〉, 《한국한문학연구》 제60호, 2015.
- 정숙인,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陶淵明의 〈飲酒〉, 蘇軾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제35호, 2012.
- 황민선, 〈〈和蘇長公東坡〉에 드러난 다산의 幽人 공간 고찰〉, 《한국시가 문화연구》 제42호, 2018.
- 袁行霈, 〈論和陶詩及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第6期, 2003.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Abstract>

Through comparing responding poems to Su Shi's(和蘇詩)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with the original poems of Su Shi(蘇軾), I analyz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created the responding poems to Su Shi's and the aspects of these poems in depth. Through this, I surveyed a phase of Su Shi's influences on the literary society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I found that responding poems to Su Shi's during these period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was written for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Su Shi. The second type was written to train their own poetry writing. The third type was written as a means

of communication with literary friends.

The first type and the second type are individual creative acts, but the third type is impossible without social consensus among literary friends. So we can say that responding poems to Su Shi's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did not stop at individual creative acts, bu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y gradually developed into a cultural code based on social consensus, and finally, they formed a literary culture which can be called 'culture of responding poems to Su Shi's'.

Key Words : 和蘇詩(responding poems to Su Shi's), 蘇軾(Su Shi),
고려(the Goryeo dynasty), 조선(the Joseon dynasty), 심리적
기제(psychological mechanism), 문화코드(culture code),
사회문화적 의의(sociocultural significance)